

돈뭉치 몰리는 ‘메타버스 ETF’... “옥석가리기 중요”

메타버스 ETF 4종 동시 상장 리스크 관리 용이해 투자 매력 상승 이후 수익 엇갈려 ‘유의’

최근 상장한 4종의 메타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170억원 안팎의 자금이 몰리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 ETF 상장으로 관련 기업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지만 성장초기인 만큼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는 금융투자, 교육 등 현실과 연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분야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아undi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이날 국내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메타버스 ETF를 각각 상장했다.

미래에셋·KB·NH·아undi가 출시한 것은 ‘패시브 ETF’로 ‘메타버스 관련 지수’를 벤치마크해 추종하는 방

〈메타버스 ETF 신규상장 종목 개요〉

상품명	KBSTAR iSelect 메타버스	HANARO Fn K-메타버스MZ	TIGER Fn 메타버스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자산운용사	KB자산운용	NH-Amundi 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기초(비교)지수	iSelect 메타버스지수	FnGuide K-메타버스 MZ지수	FnGuide 메타버스타미 지수	FnGuide K-메타버스 지수
지수산출기관	iSelect(NH투자증권)	FnGuide		
신탁원본액(E)	80억원	80억원	300억원	300억원
1좌당 가격(E)	각 10,000원			
총보수(운용보수)	0.45%(0.40%)	0.45%(0.36%)	0.45%(0.40%)	0.50%(0.45%)
AP/LP	KB, NH, 키움, 메리츠	KB, NH, 키움, 메리츠, 신한	KB, NH, 키움, 미래에셋, 메리츠, 신한, 한투	DB, KB, NH, SK, 교보, 키움, 삼성, 신한, 메리츠, 유진, 하이, 한투

/한국거래소

식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유일하게 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패시브 ETF는 단순히 기초지수를 추종하지만 액티브 ETF는 매니저가 수시로 편입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메타버스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지난 2019년 50조원 규모에 그쳤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이 오는 2030년 1800조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만큼 이번 ETF 상장에 눈길이 쏠린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시 상장한 4종의 메타버스 ETF에 17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업계는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할 때는 실제로 고평가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투자하는 ‘옥석가리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메타버스 산업 만큼 ETF 등과 같은 간접투자가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 전망이다.

특히 지난 13일 상장한 메타버스 ETF 4종은 구성 종목에 큰 차이를 보였다. ‘KBSTAR iSelect메타버스’는 에스엠, 네이버, 하이브 등의 비중이 높았다.

‘HANARO Fn K-메타버스MZ’는 펠어비스, 네이버, 하이브 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IGER Fn메타버스’는 와이즈엔터 테인먼트, 하이브,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많이 담았다. 유일한 액티브 메타버스 ETF인 ‘KODEX K-메타버스액티브’는 하이브, 펠어비스, 크래프톤 등에 높은 비중을 뒀다.

편입 종목에 따라 수익률도 크게 갈렸다. KBSTAR iSelect메타버스는 네

이버, 카카오, CJ E&M 주가 강세로 1.25% 올랐다. 네이버, 펠어비스, 현대모비스 등이 급등한 HANARO Fn K-메타버스MZ는 1.45% 상승했다. 반면 KODEX K-메타버스액티브는 하이브, 제이콘텐트리, 뉴(NEW) 등이 크게 떨어지며 0.15% 하락했다.

그러나 메타버스 ETF 내 편입비중이 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메타버스 성장의 수혜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콘텐츠, 하드웨어, 인프라 등 4개의 섹터 모두에서 기대된다”면서도 “투자 관점에서는 수혜가 언제 업체 실적으로 증명될 지, 추가 반영 시기는 언제가 될 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메타버스 산업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ETF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3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분기 최고치’

897억2000만달러, 0.9% ↑
5개분기 동안 지속 증가

올 3분기 기준 국내투자자들의 해외 주식과 채권 보유액이 106조원을 돌파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결제금액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897억2000만달러(약 106조 6411억원)로 직전 분기(889억2000만달러)에 비해 0.9%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보관금액은 최근 5개 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종류별로 보면 외화주식 보관금액은 666억9000만달러로 직전 분기(658억 8000만달러)보다 1.2% 증가한 반면, 외화채권은 230억3000만달러로 직전 분기(230억4000만달러)에 비해 0.04%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시장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567억8000만달러로 전체 보관금액의 63.3%를 차지했다. 이외 유로시장과 홍콩, 일본, 중국을 포함한 상위 5개 시장의 보관금액이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특히 주식의 경우 미국 외화주식 보관금액(567억8000만달러)이 전체 외화주식의 83.4%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분기(539억3000만달러)에 비해 3.1% 증가한 규모다. 종목별로 보면 대형 기술주와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구성 비율이 높았다. 올 3분기 말 기준 테슬라의 보관금액이 101억64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애플(39억3100만달러), 아마존(20억1800만달러)이 뒤를 이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1001억2000만달러(약 119조26억원)로 직전 분기(1036억4000만달러) 대비 3.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분기 기준으로 결제금액 최고치를 달성했던 올 1분기(1575억 6000만달러)에 비하면 36.5% 감소한 수치다.

종류별로 보면 외화주식 결제금액은 812억6000만달러로 직전 분기(792억 3000만달러) 대비 2.6% 증가했고, 외화채권은 188억6000만달러로 직전 분기(244억1000만달러) 대비 22.7%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시장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이 761억달러로 전체 결제금액의 76%를 차지했다. 상위 5개 시장 결제금액은 전체의 99.2%에 달했다.

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결제규모의 90.3%를 차지하면서 미국향 주식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전 분기(740억 9000만달러)에 비하면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결제금액 상위종목을 보면 10개 중 9개 종목이 미국 주식이었다.

금액은 테슬라(47억5000만달러), 애플(24억달러), 아마존(21억달러) 순으로 높았다. 다만 테슬라의 경우 직전 분기(59억달러)에 비해 결제금액이 19.5% 감소했고, 매도금액(25억7700만달러)이 매수금액(21억7700만달러)을 추월하면서 총합 순매도 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외 프로세서즈 울트라프로 QQQ(18억3900만달러),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블3X(15억3000만달러)와 같은 ETF 및 글로벌 X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ETF(11억600만달러) 같은 홍콩 ETF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양유경 기자 n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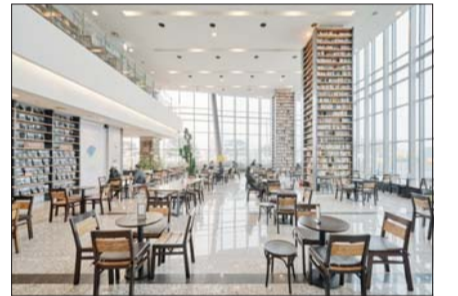
신영증권, 본사에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문학동네와 협업... ‘카페꿈마’ 오픈

신영증권이 문학동네와 협업해 서울 여의도 본사 1~2층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

신영증권은 카페꿈마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개점을 목표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14일 밝혔다. 카페꿈마는 우리나라 대표 출판사인 문학동네의 자회사인 북카페다. 카페에서 각종 도서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베이커리와 커피 등 음료를 즐길 수도 있다. 카페꿈마는 최근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8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카페꿈마는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여의도 금융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복합문화공간’ 콘셉트에 가장 적합한 업체였다”



카페꿈마 송도점 내부 전경. /신영증권

며 계약 배경을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이번 개점을 통해 문학동네의 작가 네트워크를 확보 중인 카페꿈마와 국내외 유명 작가와의 북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페꿈마 여의도 신영증권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내년 초에 정식으로 개점할 예정이다. 카페꿈마는 금융중심지인 지역 특성을 감안해 타 점포 대비 많은 금융투자 서적을 비치할 계획이다. /양유경 기자

신한금투, ‘투자플러스 이슈진단’ 개편

20여 가지 공시정보 확인 가능

신한금융투자는 실시간 투자정보 예측 분석 서비스인 ‘투자플러스 이슈진단’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플러스 이슈진단 서비스’는 신한알과 앱에서 보유종목에 대한 공시 이슈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측형 투자정보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접속하지 않아도 신한알과에서 보유종목에 대한 20여가지의 공시 정보(잠정실적, 주요주주 지분변동 등)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시와 과

거 발생한 유사공시를 분석해 과거 주가 추이 및 수익률, 동종업계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향후 주가 예측 및 선제적 대응을 돕는다.

예를 들어, 권리락일 및 권리락일 예상 주가 하락, 증자 참여를 위한 마지막 매수·매도일자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유종목 공시에 대한 푸시(Push) 알림 서비스도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초보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공시 내용에 적힌 전문용어(유상증자, 액면분할 등)를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하고, 공시 유형별 특징적 요소를 시각화해 초보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양유경 기자

대신증권, 연말 증시전망 온라인 세미나

19일 16시 줌으로 진행

대신증권이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크레온 고객 500명과 함께 ‘연말 증시전망 온라인 세미나’를 줌(ZOOM)으로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비대면 주식거래 고객에게도 참여형 투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이 줌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박과 원자재 가격 급등, 조기 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Q&A)을 통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에 참여하려면 대신증권 및 크레온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 또는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된



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유경 기자